

2010 승진형법기출문제 경장 [윤황채교수]1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 ③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 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할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 법과 구법 중 경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 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 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
-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
- ③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 ④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②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 ④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폭발물사용죄는 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다.
- ②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③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 ④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처벌한다.

6.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범익권 형성, 넷째 (㉢),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보충성
- ②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긴급성
- ③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필요성
- ④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보충성

7. 형의 종류가 중한 것부터 경한 것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①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몰수-과료
- ②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몰수-과료
- ③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 ④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8.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동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 ③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9.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가로 15cm, 세로 16cm, 길이 153cm, 무게 7kg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 ④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하였다.

1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도 적용된다.
-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④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1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②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고 그 법익침해도 절도범행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12.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국민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한 경우
- ㉣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 ㉤ 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탄약창고의 보초가 상급자들이 그 창고 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
- ② 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옥내의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자 그 간부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경우
- ③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④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 다음 중 형법상 예비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 ① 도주원조죄 ② 영아살해죄 ③ 간첩죄 ④ 통화위조죄

15.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만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다.
- ③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르게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A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7.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의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甲이 乙, 丙, 丁으로부터 절취해 온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오던 중 乙, 丙에게 드라이버를 사 주면서 "丁이 구속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 할 텐데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甲은 乙, 丙이 범한 특수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③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교사자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18.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의사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 ③ 치과 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甲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친구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을 없다.
-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20.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②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할 필요는 없다.
- ③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④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1.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③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22.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회상규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 ㉢ 영리등을 위한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③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는 비록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4.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죄책은?(판례에 의함)

- ㉠ 강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실제적 경합범
- ㉡ 강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
-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
-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

25.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위에 있던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③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 ④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한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26.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부녀가 품통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8.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주류 등을 제공 받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강도죄는 고려하지 않음).

② 유흥주점 업주가 과도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를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단순히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상당에 관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

29.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증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②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0.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본사와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출자자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2.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그 점유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33.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진의(眞意)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 ②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화투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③ 호텔오락실의 운영자가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부실공사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오락실운영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다.
- ④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기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

35.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중중의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는 자가 중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중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②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③ 권리의무와 무관한 예고등기를 말소신청한 경우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든 사실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 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7. 간통죄의 중용과 유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간통에 대한 중용·유서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할 뿐이다.
- ②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
- ③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와 사이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38.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 ③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9.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중범이 성립한다.
-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0. 판례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전대공무원 甲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세무공무원 甲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통고 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혼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 ㉣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 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탐정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

계 급	윤! 경 장	과 목	윤! 형 법	
1	2	3	4	5
①	③	③	③	①
6	7	8	9	10
①	④	④	③	③
11	12	13	14	15
④	①	④	②	③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④	①
21	22	23	24	25
③	②	①	③	③
26	27	28	29	30
③	②	④	①	④
31	32	33	34	35
②	④	③	①	④
36	37	38	39	40
③	③	④	①	②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6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음 2010.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0. 제2판]
7. 법1 겹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겹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9. 법1 겹2 경3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0. 개정판]
10. 경찰형법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 카페

-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 <http://cafe.daum.net/new-police>
- <http://cafe.naver.com/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